

# 스트레스 확 날려주는 깔끔하게 매운맛



수원닭발통닭



김경민 대표

입안 가득 증독성 있는 매운맛과 감칠맛나는 국물닭발로 문전정시를 이루는 곳이 있다.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수원닭발통닭' 이 바로 그곳인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원닭발통닭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 받을 수 있게된 배경에는 김경민(32) 대표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한 몫했다.

김 대표는 전국 각지에 유명하다고 소문난 닭발집을 찾아다니며 맛을 봤고 최상의 양념조합을 연구했다.

젊은 대표로 통하는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지역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 성격과 맞지 않아 요식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자취생활과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됐다”고 덧붙였다.

수원닭발통닭의 대표 메뉴는 마약무뼈국물닭발과 옛날통닭, 달큰닭도리탕, 닭똥집볶음 등이다.

닭발은 다양 함유된 콜라겐 성분이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피부미용에 도움을 준다. 특히 꼼꼼한 세척으로 닭발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고 쫄깃한 식감을 더욱 살렸으며 매콤한 양념을 더해 손님 입맛을 겨냥했다.

국물닭발은 깔끔한 매운맛과 텁텁한 끝맛이 없어 단골손님에게 인기가 높다.

김 대표는 “닭발은 콜라겐 덩어리이기 때문에 삶는 과정에서 불 조절에 따라 식감이 좌우된다”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적당한 시간과 양념의 비율 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닭 뼈를 우려낸 육수로 국물닭발을 끓이고 있는데 진하고 담백한 맛까지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옛날통닭과 달큰닭도리탕, 닭똥집 등 닭발과 연계되는 메뉴를 사이트 메뉴로 구성해 닭발을 즐기지 않는 손님이나 매운맛에 취약한 이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옛날통닭은 10호 닭을 사용해 푸짐함을 더했다.



마약국물닭발과 옛날통닭.

##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양념 비율 무뼈국물닭발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 최상급 국내산 재료 사용 깊은맛 매료

그는 “옛날통닭은 통으로 튀겨내기 때문에 19군데 칼집을 내서 골고루 잘 익게 해주는 게 포인트”라며 “다른 가게보다 큰 닭을 사용해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재료부터 최상급의 국내산 재료로 취급한다.

그는 “음식맛의 가장 기본은 본연의 재료”라며 “재료가 싱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율의 양념을 해도 깊은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도 존대를 하며 존중해준다. 그라아만 직원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요식업에 뛰어들면서 나 자신과 한 약속이 있다”며 “말만 한 나를 만들더라도 ‘대중’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주)광주신세계는 1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새달라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 수해 복구 1천만원 전달

(주)광주신세계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9월 한달 동안 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광주신세계는 1일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일부 수익금 1,000만원을 미리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전수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차신규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이번 장마로 수해를 입은 광주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이번 장마로 인해 아직도 힘들어 하는 소외계층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그동안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 4월에는 광주청년센터를 통해 긴급구호물품 비용을 지원했고 5월에는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에게 놀이키트 비용을 지원했는 뿐만 아니라 6월에는 소아암 환우를 위한 치료비를 전달, 7월 광주지역 소외가정에게 선봉기, 8월 전남지역 소외가정에게 여름 이불을 전달한바 있다.

/박선옥 기자

## 올 추석 고향방문보다 선물세트 선호 예상

### 이마트 '배송주소 입력 서비스' 시행

올 추석은 고향방문대신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추석 사전예약을 진행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25% 신장했으며, 이 가운데 한우세트 48.4%, 과일세트 22.3%가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사전예약 인기와 선물세트 택배배송 고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축산 세트의 경우 보냉팩을 이용해 이마트 미트센터에서 직접배송하며 개별 패키지를 세로 형태로 길쭉하게 쌓아 운반이 편리하도록 포장법을 개선했다.

과일세트는 제사 및 햇상품을 맞출 수 있어 추석선물세트의 대명사다.

이마트는 품질이 좋은 사과, 배 선물세트 물량을 구하기 위해 다량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크기와 모양이 규격화되지 않아 B급으로 분류된 상품까지 전체 매입하는 ‘풀셋 매입’을 통해 물량을 확보했다.

풀셋 매입을 통해 대량으로 사과, 배를 매입하면서 물류 비용을 줄였고, 선별을 통해 세트에 쓰일 ‘대과’ 물량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마트는 산지 다변화를 통해 신규 매입루트를 구축, 장마 피해가 크지 않

은 지역을 찾아 매입했다.

기존 사과 산지인 경상북도 영주, 안동 이외에도 문경, 청송, 봉화 등 신규 산지를 개발했으며, 다른 산지보다 빠른 8월 말에 ‘홍로’ 품종이 출하되는 평균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전북 장수, 강원도 정선 등지 고지대 사과 농가로부터 물량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사인머스켓 세트도 강화했다. 올해 추석 사인머스켓 품목을 5가지로 늘리고 물량은 11배 늘린 2만2,000세트로 확대했다.

‘배송주소 입력 서비스’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고개들이 직접 배송 주소를 문서로 작성해 전달해야 했지만, 이번 추석부터는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택배 발송 주소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매장서 세트 배송을 위한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문서로 배송 주소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줄일 수 있다.

이마트 김양호 광주점장은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건강 및 신선선물세트 배송으로 마음을 전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양질의 선물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 ‘홈술·홈카페’ ...코로나가 바꾼 추석 선물 트렌드

### 와인·커피세트 인기...긴 장마로 과일 물량 확보 어려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올해 추석 선물세트에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세트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이른바 ‘홈술’, ‘홈카페’ 트렌드 영향으로 와인과 커피세트 판매도 증가했다. 반면 전통적인 인기 추석 선물세트인 과일

은 긴 장마로 생산량이 줄면서 물량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매출은 지난해 추석 예약판매 첫 16일간보다 57% 증가했다.

이 기간 홈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세트는 285% 매출이 증가했고 손 소독제, 손 세정제, KF 마스크 등을 포함한 위생 세트도 800세트 넘게 팔리며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홈카페’, ‘홈술’ 열풍에 힘입어 와인 세트는 4,500여세트가 팔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96.1% 증가했다. 커피 세트도 126% 매출이 늘었다.

과일 세트 중 사과 세트는 154%, 배 세트는 36% 매출이 증가했다.

과일 세트는 긴 장마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특히 배와 사과 모두 긴 장마로 인해 선물세트에 쓰이는 크기가 크고 외관이 좋은 대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긴 장마로 인해 햇배는 작년보다 19%가량, 사과는 10% 정도 각각 생산량이 줄어들고 추석이 다가올수록 시세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신선도와 당도에는 이상이 없지만 크기와 모양이 규격화되지 않아 ‘B급’으로 분류된 상품까지 전체 매입한 뒤 선별을 통해 선물세트에 쓰일 대과를 구하는 방식과 산지 다변화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긴 장마와 코로나19가 선물세트 트렌드마저 바꿔놓고 있다”면서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시스템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향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